

# 獨語獨文學科의 현황과 발전 방향

李 昌 馥

(韓國外大 獨語獨文學科)

## 1. 머리말

대학과 사회와의 유기적 관계가 대학이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역할의 측면에서 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대학이 특수 학문 분야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급변해 가는 현대 사회에서 국가와 사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대학의 사회적 기능이 오늘날 학문적 기능 못지않게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교육은 이전의 상아탑적인 폐쇄성과 순수성에서 벗어나서 급속히 발전해 가는 현대의 정보·산업 사회와의 국제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그 선도적 기능을 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대학은 시대적 요청과 실정에 맞추어 발전적인 교육 방법을 개발해 나가야 함은 물론, 미래의 재반 교육 문제들에 대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나친 정도로 과열된 교육 열에 비해서 교육 정책은 일관성 없이 자주 변해왔다. 그로 인한 많은 '교육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통계와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최소한 15~20년 이후를 대비하는 미래 지향적 계획 수립은 문교 당국과 대학이 해야 할 필연적인 과제라고 하겠다. 지난 날에 우리가 이미 체험했던 중·고등학교의 제도 개혁, 입시 제

도의 잦은 변화, 실험대학 등의 대학 제도 개혁 등은 오늘날에 와서 그 제도적 모순과 개선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전문교육 기관이나 대학 당국 자체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의 짧은 글이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독어독문학과와 현황을 분석해 보고, 현재까지 공통적으로 야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의 해결 방법을 연구해서 미래의 독어독문학 교육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한다.

## 2. 獨語獨文學科의 發展過程

세계 인구 중에서 겨우 1억 남짓한 인구가 모국어로 사용하는 독일어가 세계 6대 언어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독일의 역사, 문화, 학문의 배경 때문이며, 따라서 독일어는 학술 언어로서 세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본의 영향에 의해 독일어가 우리나라에 보급되기 시작한 이래로, 1945년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대학에서는 철학, 법학, 의학과 자연과학 분야에 걸쳐서 독일어는 학문 연구에 있어서 영어에 못지않게 중요한 필수 언어로서 한국의 대학에 자리잡게 되었으며, 따라서 독일어는 순수 학술 언어로서의

기능에서 자연히 독해 위주의 교수와 학습에 치중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독어독문학은 독해력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사회가 요구하는 실용성이 고려되지 못했다. 그러나 독일어는 학문 연구에 필요 불가결한 언어로서 최근까지만 해도 고등학교의 제 2 외국어는 거의가 독일어였으며, 대학에서의 독일어 학습도 필수적 조건으로 간주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현상은 근래의 시대적 변화와 문교 정책의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거치면서 악화되었다.

독어독문학과의 발전 과정을 살펴 볼 때 우리는 이를 외적·내적 발전의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다. 외적 발전이라 함은 초창기부터 현재까지의 독어독문학의 설립·확대 과정으로서 대학 수, 학생 수, 교수 수 등을 말하며, 내적 발전이라 함은 독어독문학과의 학습 과정과 학습 교재 및 독어독문학의 학문적·사회적 위치와 역할의 변화·발전을 말한다. 우선, 외적 발전 과정은 초기 발전기와 확산기로 크게 양분될 수 있다. 독어독문학과는 1946년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에 처음으로 설치되어 20명의 학생을 수용했으나 첫 졸업생은 6·25사변이 끝난 후야 배출될 수 있었다. 그 뒤 1954년에 한국의국어대학에 독어과가 신설되었으며, 수년 뒤인 1960년대에 들어와서 고려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서강대 등의 대학에 독어독문학과가 신설되어 비로소 우수 대학내의 유명 학과로 정착되었고 독어독문학의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1975년에는 지방에서는 최초로 계명대학에 독어독문학과가 설립되었고, 1976년에는 충남대학에 생기게 되는 등 '80년도까지 서울과 지방의 대학에 확산·설립되어 독어독문학과의 초기 발전이 이루어졌다.

독어독문학과의 확대기는 '80년대부터 '81년 사이에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는 문교부의 정책에 의해 무려 38개 독어독문학과가 설립됨에 따라 시작되었다. 이 숫자는 전반기의 1954년부터 1980년 이전까지 인가된 수보다 많은 것이며, 이에 따라서 독어독문학을 전공하는 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는 물론, 교수 층원에도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과과정의 새로운 변화와 졸업생의 사회 진출 등의 문제들이 이상적 해결 대책을 찾지 못한 채 누적되어 있는

부작용도 생기게 되었다. 현재 전국 116개의 대학 중에 58개 대학(독어교육학과는 제외)에 독어독문학과가 설립되었다.

독어독문학과의 외적 발전은 내적 발전이 없이는 무의미한 것이다. 대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국 독어독문학회는 1980년 11월 29일과 1981년 2월 18일 양차에 걸쳐 모형 교과과정 시안에 대한 토론을 가졌고, 신현대학 교육목표에 입각한 개선을 위해 교과과정 모형을 작성하고 실시하였다. 이러한 모형 제시를 통해서 다양하고 복잡한 교과 내용을 어느 정도 획일화시킬 수 있었다.

국내적으로는 대학원과 박사과정에 확대·신설되어 실력 있는 전공 분야의 전문인을 배출하는 한편, 독일 유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많은 유학생들이 독일에서 독어독문학을 전공해서 교수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으며, 비록 독일과는 다르다 해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독어독문학과는 많은 질적 향상을 가져 오게 되었다. 또한 교재 개발, 도서관의 도서 확보, 시청각 기자재의 설치 등을 통해서 학습 여건은 초기에 비해 많이 발전되고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개선·개발되어야 할 문제점은 산적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초창기에 있어서 독어독문학을 전공화한다는 것은 사회 진출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계 문명의 발달로 동·서양의 공간적 격차가 극복되면서 국제화 시대를 대비한 외국어의 필요성은 급증하게 되었다. 더구나 독일이 정치·문화·경제적으로 갖는 세계적 위치와 관련해서 독어독문학은 학문적으로나 사회 취업의 관점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관심의 대상으로 되었다. 독어독문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전공을 계속 연구하거나, 독일 실력을 바탕으로 독일 유학을 통해 다른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학문성, 어학과 문화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문화 사업 및 회사 진출의 직업성을 상당히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 예로 중등 붐을 통한 제1차 경제 부흥기인 1970년도 중반에는 독어독문학과 출신자가 100% 취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독어독문학과의 실정은 외적·내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난국에 처하게 되었다. 이는 실

험대학 운영의 부작용과 졸업정원제, 대학 입시 제도 등 일련의 문교 정책에 의한 문제점들에 의한 것으로서 이 문제들은 다각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해 시급히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 3. 現況과 問題點

급진적으로 발전·변화해 가는 국제 산업 사회 시대에서 대학과 사회와의 유리 현상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서 대학교육은 순수 학문 추구의 대학 이념에서 벗어나 산업 사회의 전문적 요청을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점에서 사회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교육은 학문성과 직업성의 두 가지 요소가 잘 융화되어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독어독문학의 교육 목표도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독어독문학의 연구를 통한 인간 교육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독일어의 전문 실력을 배양해서 일반 직장으로 나아가는 사회 진출, 번역과 창작 등 문화계로의 진출과 학계 진출을 위한 전문적 직업인의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화, 작문, 독해력의 기초 실력을 튼튼히 해야 할 때이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독일의 문화, 경제, 역사, 사회 등에 대한 일반 상식을 길게 해야 하며, 나아가 독어학에 대한 지식과 독문학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학교육 목표의 실현 가능성은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대학 정책의 빈번한 변동, 입시 제도에 의한 합격 위주의 학과 선택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 교과과정의 문제점, 교수 방법과 학생들의 학습 태도에서 오는 문제점 그리고 전공과 직업과의 연계성 결여에서 오는 사회 진출의 제약 등은 그 대표적인 문제 요소들로서 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한 새로운 발전 방향의 제시는 오늘날 대학이 안고 있는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선 ① 대학 정책상의 문제점, ② 제2외국어 정책상의 문제점, ③ 교수와 학생들의 문제점, ④ 사회적 문제점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 1) 大學 政策上의 問題點

이는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실험대학의 결과에서 생긴 현재의 대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었다. 실험대학은 “외적으로는 사회 속의 대학으로 개혁하고, 내적으로는 각종 비효율적인 요소를 찾아 이를 개선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탄력성 있는 자율 규제로 전환한다”는 목표 아래 1973년에 실시되기 시작했다. 그 개선의 주요 내용은 졸업 학점을 160 학점에서 140 학점으로 하향 조정하고, 학과별 정원제 대신에 대학별·계열별 정원제를 권장함과 동시에 신입생 선발을 계열별로 하고 교양교육을 강화해서 교양 과목 이수 학점의 배분율이 전체의 30%를 유지하고, 부전공과 복수 전공을 권장하며 능력별 학점 취득, 조기 졸업제, 계절 학기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한다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다.

이러한 개선 정책은 대학교육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의 개선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체 제도적 운영의 변화만을 초래했을 뿐이었다. 오늘날 실험대학 제도가 없어짐에 따라서 현행의 모순된 대학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모든 대학들은 교과과정의 개편을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로 생각하고 그 개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실험대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학점 감축(140~160 학점)의 의도는 교수와 학습의 질적 심화에 목적이 있으나, 이와는 달리 학생들에게 면학의 부담만을 감소시킨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원인에는 이 정책 시행을 위한 적절한 대책과 운영, 교과과정의 과학적 운영, 학교 시설의 개편과 보완,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 의식, 교수들의 심도 있는 강의 등이 없었다는 복합적 요소가 있다고 보겠다.

② 전체 이수 학점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교양교육의 강화, 부전공 및 복수 전공의 실시는 전공교육의 부실과 질적 저하의 직접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우리는 <표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11개 대학의 전공 시간 수보다 교양 시간 수가 많다는 모순적 사실을 볼 수 있다.

〈표 1〉 교양·전공 학점 및 그 문제점

대 학	학 점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 양			전 공			
	필 수	선 택	계	필 수	선 택	계	
A	35	51	86	24	30	54	회화에 필요한 과학적 학습 도구를 사용하는 데 따르는 소수 인원의 교육 필요
B	20	22	42	33	37	70	
C	23	19	42	22	38	60	
D	26	9	35	30	43	73	전공 확대 요구
E	48		48	21	24	45	부건공 21학점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전공 학점의 제약, 전공 학점의 확대 요망
F	조정중	조정중	42	30	30	60	전공 필수 학점의 축소 요구, 전공 선택의 3·4학년 구분을 없앴
G	46		46	52	42	94	교양 필수 학점 과다, 전공 기피 현상으로 과의 특성을 살리기가 어려움
H	15	46	61	25	39	64	교육 시설 부족
I	18	25	43	33	30	63	교수 부족, 학생이 너무 많음, 워업난으로 학습 의욕 부족
J	27	16	43	24	53	77	취업 시험 상황 개선 필요
K	42	29	71	42	27	69	

③ 계열별 신입생 모집과 계열별 교과과정 실시로 인해서 전공 학과 교수와 학생간의 격리감이 생겨서 학생 지도가 어려워졌으며, 학생들은 학과에 대한 소속 의식과 전공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1학년에 교양 과목이 집중적으로 강의되고 있기 때문에 신입생들은 대학과 전공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과목과 유사한 과목의 반복으로 실망과 권태를 갖게 될 위험이 컸다. 또한 학생들은 실리 위주의 학과 선호 경향에서 특정 학과에 몰려 학과 구성상의 문제가 야기될 뿐만 아니라 학점만 취득하려는 편위주의 학습 태도가 생길 우려가 있다.

이상 열거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과별 모집으로의 제도적 환원이 불가피하며 오늘날 대학이 학과별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계열별 모집시의 교과과정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공 과목을

1학년부터 강화해서 실시하되, 교양 과목은 과목의 특성과 전공 과목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전 학년에 분배되는 새로운 교과과정 개편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 2) 入試制度和 제2외국어 교육 政策上的 問題點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가 선택 과목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것은 제2외국어가 자유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는 현행 입시 제도에 근거하고 있다. 세계가 1일권으로 되면서 현대 사회가 급속도로 국제화되어 가는 추세에서 제2외국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입시 위주의 고등학교는 제2외국어 교육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체 대학 수험생의 1/10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제2외국어를 선택하고 있다는 데에서 증명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에 이르기까지는 제

2 외국어에 대한 문교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겠다. 또한 선지원 후시험의 입시 제도에 의해서 많은 신입생들은 자신의 전공 과목에 대한 취향과 의사와는 관계없이 입학하게 되어 처음부터 전공 과목에 대한 애착과 열의를 상실하게 되는 위험을 가지게 되었다. 경우에 따라서 대학생들은 전공 실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은 초급의 기초 강의부터 실시해야 하는 어려움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독어독문학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입시 제도의 개혁과 제 2 외국어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으로 조속히 시정·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입시 제도가 학과별 선지원 후시험 제도로 변경 실시됨에 따라 상당한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있다. 그 한 예로써 1989년도 독어독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명 학급에서 90% 가까운 학생들이 독일어를 입시에서 선택했거나 고등학교에서 배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선시험 후지원 제도의 개선에 의한 것으로 대학교육의 획기적인 발전의 가능성을 부여한 증거이기도 하다. 또한 대학 입시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와 같이 각 대학이 제 2 외국어를 필수 선택 과목으로 정하게 될 경우, 고등학교에서의 제 2 외국어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며, 이 결과로 대학에서의 독어독문학과를 비롯한 제 2 외국어 학과는 본연의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채도에 오를 수 있게 될 것이다.

### 3) 敎授와 學生들의 問題點

전공 과목을 무시한 입학 우선주의에서 대학생들은 입학 동기조차 분명하지 못한 실정에서 전공 과목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더구나 전공의 직업성이 희박할수록 노력과 성의 부족을 초래하게 된다. 거기에서 대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입시 위주의 학습 태도에 익숙해 있는 상황에서 교수들의 해석 위주의 일방적 강의는 대학생들에게 전공 과목에 대한 권태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자발적 참여 의식이 퇴조되는 반면에 수동적 수업 태도를 유발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사고력과 비판력을 길러

줄 수 있는 교수 방법의 개발과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문성·직업성·인간성이 고루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교과과정의 새로운 연구가 있어야 한다.

### 4) 社會的 問題點

대학 이념은 사회와 격리된 학문적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과 연관된 사회 참여의 임무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사회에서 선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지성인과 사회의 요청에 부응하는 직업의 전문인을 배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진출의 균등한 기회를 모든 대학 졸업자들에게 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없이는 그 실현의 가능성은 매우 어렵다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공직이나 일반 회사의 채용에 있어서 제 2 외국어가 시험 과목으로 되어야 하는 입사 시험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게 요망되고 있다. 이에 부응해서 전공 어학 실력을 입체적 교수 방법을 통해 강화시키고 독일 문화와 독일학에 대한 실용적 지식을 교수할 수 있는 교과과정의 개발이 요구된다.

### 4. 새로운 發展方向의 摸索

현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변화된 현실(실험대학 제도 폐지, 입시 제도의 변화 및 사회와 대학과의 관계 변화 등)에 알맞은 교과과정의 시급한 개편이다. 이 개편을 위한 발전적 교과과정의 효과적 작성과 운영을 위해서 몇 가지 전제들이 제시될 수 있다. 물론 아무리 훌륭한 교과과정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학문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교수의 확보와 원만한 교과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훌륭한 연구 조건과 시설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의 충족은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필수적인 전제인 것이다.

우선 새로운 교과과정을 작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제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專攻科目의 強化

1 학년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교양 과목을 학년과 연계되는 성격과 수준에 맞게 전 학년으로 분산시키고, 1 학년부터 전공 과목(특히 어학 실력의 향상을 중심으로)을 강의해서 학생들이 대학을 새롭게 실감하고, 전공에 대한 이해와 애착심을 증진시키며, 학과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함은 물론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를 깊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찍부터 전공 과목에 대한 연구 체계를 갖게 할 수 있다. 1·2 학년에 독일어 실력 배양에 집중하고, 3·4 학년에 전공을 어·문학 분야별로 연구한다. 그리고 학점은 과목당 1 시간 1 학점으로 하되, 1 과목 3 학점 단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앞으로 폐지될 교련 과목 시간을 전공 과목으로 배당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러한 전제에서 볼 때 현행 실시되고 있는 교양 과목 대 전공 과목의 학점 비율은 자연적으로 전공 과목의 하한선을 상승 조절하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

### 2) 教授 및 受講 環境의 改善

능력 있는 우수한 교수의 확보는 필연적인 대전제 조건임을 이미 지적한 바 있으며, 교수들의 연구 환경 개선은 물론 학생들의 수강 환경 개선도 교과 과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도서관 환경의 개선, 우수 전공

서적 확보 그리고 20 명 수준(현재는 50 명 수준임)의 수강생 규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講義 및 評價指導 徹底

전임 시간 수는 9 시간이 초과되어서는 아니며, 교수들의 충분한 연구와 준비로 해석식 위주의 일방적 주입식 강의는 지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과제물과 강의 주제 연구 등에 대한 검토와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교 제도의 적극적인 활성화가 요청되고 있다. 또한 시청각실의 적극적인 이용과 기타 영화, 카세트 등의 사용을 통해 입체적 교육 방법이 시행되어야 한다. 실용 독일어 실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외국인 교수가 회화와 작문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繼續的인 敎科課程 模型 開發을 위한 전공 과목 教授들의 共同 研究와 討論

독어독문학 교수들은 학회를 중심으로 교과과정의 운영과 강의 방식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대학간의 연계 토론을 통해 문제점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보완해 나가므로써 교과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변화해 가는 교육 실정에 알맞게 여러 교육 제도를 계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